

법회안내

운월스님(여래 원 주지) 매월 넷째 일요일 10시 육군교도소 법회, 매월 음력 1일 오전10시30분 초하루 기원 법회, 매월 음력18일 오전10시 30분 자장재일법회, 매월 음력 24일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법회. (02)532-6800

우항스님(천은 정사 주지) 매월 음력 1일 오전10시 초하루기도법회, 매월 음력 15일 오전10시 보름기도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10시 자장기도법회,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 관음기도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일요법회. (0342)701-0770

지도스님(관음 사 주지) 매월 음력 1일 오전10시 초하루법회, 매월 음력 15일 오전10시 보름인동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10시 자장재일법회, 매월 음력 24일 오전10시 관음재일법회, 매월 첫째주 월요일 저녁7시30분 가정법회, 매주 토요일 저녁7시30분 청년회 법회. (053)784-3669

재연스님(두암 선원 주지) 매월 음력 1일 오전10시 초하루법회, 매월 음력 15일 오전10시 보름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가족법회 기초교리 강좌. (062)971-8626

지광스님(삼선 포교원 주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 정기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5시 중고등학생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7시 청년회법회. (02)922-9652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친과 함께 보내 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수첩

6·25 순국선열 위령제 호국 금강사

한반도를 포화로 뒤덮은 6·25전쟁이 발발한지 48년. 전쟁 중 숨진 240여만의 고혼을 위로하고 휴전선 인근 성지와 전적지를 순례하는 '6·25 진물장병 및 희생영령 위령대제'가 25일 당시 격전의 현장인 호국 금강사에서 봉행된다.

호국 금강사는 85년 스리랑카에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함과 아울러 호국 영령들의 위패를 모신 금강사리탑과 금강보궁을 건립한 호국 성지.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총무원장 월주 스님과 6·25참전 16개국 주한 외교사절을 비롯 3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영가천도의식과 위령대제, 방생 등으로 진행된다.

행사후에는 도피안사와 심원사지, 노동당사, 월정리역, 제2땅굴 등을 돌아본다. (02)749-8646

직장인 위한 참선수련 직장인 열린 시민선방

일반인들을 위한 시민선방과 주말 참선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길상사(주지 청학)가 점점 늘어나는 수련자들을 위해 설립된 큰 방에 '열린 시민선방'을 개설했다.

열린 시민선방은 아침 7시~오후 12시 및 오후 1시~저녁 6시까지 운영하는 주간반과 새벽 4시~오전 9시 및 오후 4시~밤 9시까지 운영하는 야간반을 새롭게 마련했다. 매 시간 50분 좌선과, 10분 포염이 진행된다.

또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수련회가 없는 때에는 평일과 같이 열여두고,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들의 참 수련도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02)3672-5945

부산불교교육원(원장 성재연)도 제4기 참선수련교실을 연다. 오는 8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30분 주간반과 오



길상사는 보다 많은 불자들이 참선수련을 할 수 있는 열린 시민선방을 열었다. 사진은 길상사 주말수련회.

후 7시 야간반에서 참선수련하는 자, 호흡법, 생활참선법 등을 지도한다. (051)466-4080

설법들으며 명랑기행 불교신행원 성지순례

불교신행연구원(원장 김현준)이 두 번째 신행체험설법회를 떠난다.

매월 둘째주 목요일마다 불교신행을 몸소 체험하고, 사찰의 성보들을 공부하는 신행체험설법회는 공주 마곡사와 아산 보문사로 11일 오전 8시에 출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순례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위원 석주 큰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신심을 다지는 시간도 마련된다. 불교신행을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불자들의 참가를 기다린다. (02)582-6613

신라불상·건축미감상 신라문화대학 개강

신라문화진흥원은 신라문화에 대한 전문지식 배양을 위한 제1기 신라문화대학 연구반과정이 오는 7월30일까지 매주 목요일 7시에 마련된다. 연구반과정에서는 선불교의

종도(성본스님), 불교회화사(황상주 관장), 사천왕사와 황룡사(김상현교수), 통일신라의 공예(김유식예언연구사), 한국의 불교사(이봉춘교수), 불상의 이해(최민희선생), 불국사의 아름다움(윤경렬 중) 등 기초과정에서 다루지 못했던 심도있는 내용이 언급된다. (0561)746-1950

삼배·함장에 깃든 의미 통도사 불자예절 강의

"나는 불자다." 이렇게 말해 놓고도 사찰에 가거나 스님을 만났을 때 법당에 들어섰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이들이 많다. 그런 초발심자들을 위한 야간 불행학교가 개강된다. 통도사부산포교원(원장 심산)은 10일부터 5개월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저녁 불자예절과 의식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한다. 함장하는 법부터 삼배, 법당예절 등에 관한 기본적인 예절을 통해 단순한 의식을 넘어 그 의식에 녹아든 심오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될 것이다. 삼배, 함장속에 온 우주를 담아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불자가 되는 길을 야간 불행학교에서 배워보자. (051)816-2241

삼배·함장에 깃든 의미 통도사 불자예절 강의

다시 다짐을 깊이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가이산의 부처님께 부락 드러 보고 싶은 마음에서였을까. 아니면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아만 때문일까. 입구의 비구니스님이 계시는 암자에서 나의 마음을 풀기로 하였다. 나는 법당 안의 부처님 앞에 섰다. 그리고 향을 사르고 삼배를 올렸다. 나의 마음을 다스려 보았으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생각이 모든 것을 가져가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또 갈 길도 모르면서 부처님께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빌었다. 가야할 길도 없고 갈곳도 없는 우

나의 수행일기 배호성 (前 삼우회화 사장)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처해있거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신앙의 힘에 의지하려고 한다. 나 또한 그랬다. 내 할아버지께서 아주 옛날 잠시 승려생활을 하셨던 인연으로 나는 불교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성인이 되어서도 불교사에 다니며 소극적이었지만 신앙생활을 해나갔었다. 그리고 항상 가슴속에 탐진치 삼독을 버리고, 나름대로 불자로서 검소하고 겸허한 자세로 내 삶을 열어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96년 가을 내가 경영하던 삼우회화이 예상치 못했던 복잡한 소송돌이에 휩싸여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게 됐다. 나는 나와 20여년 생을 온갖 어려움과 즐거움을 같이한 반려자와 서울의 한 사찰에서 방새도둑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며 부처님 앞에서 울었다. 그토록 오랫동안 외지해 온 부처님께서 왜 내게 고통을 주시는지 원망스럽기만 했었다. 지난해 여름 순천에서 대구로 가던 다리가 못했던 심도있는 내용이 언급된다. (0561)746-1950

리 중생이 아닌가? 그러나 지금 나는 한없이 급해서 가야한다.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가는 것만이 최선인 것으로 생각 할 뿐이다. 그래서 나는 부처님 앞에 섰다. 내가 갈 길을 부처님께 대신 가시라고 빌었다. 나를 업시고 고 달았다. 부처님 말씀에는 이러한 것이 없었는데도 다른 불자들의 기도의 신봉력을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나는 많은 절을 하였다. 무엇이 부처님의 신봉력인지 모르면서, 그것이 또 하나의 탐욕심인 것을. 그리고 나는 다시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그리고 부처님을 뵈기 전보다는 훨씬 나았고,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기 시작하며 무한히 서울에 도착하였다. 이렇게 풀려가는 나의 육신과 마음,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며, 무엇을 위하여 참회 하였는가? 그러나 그것이 또 하나의 업을 쌓고 인연을 만들고 그 물결에 휩싸

“삼독심 버리고 검소하자” 부처님께 대신 가 달라고 빌었으니...

안내 표지판을 따라 해인사 길로 걸어들었다. 회사가 엉망이 되고 난 후 나는 하루도 마음 편안할 날이 없었다. 그래도 처음 그렇게 되었을 때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찮아져야 할 것인데, 시일이 갈수록 점점 더져져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내 마음의 고뇌는 더해 갔다. 다시 다짐을 깊이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가이산의 부처님께 부락 드러 보고 싶은 마음에서였을까. 아니면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아만 때문일까. 입구의 비구니스님이 계시는 암자에서 나의 마음을 풀기로 하였다. 나는 법당 안의 부처님 앞에 섰다. 그리고 향을 사르고 삼배를 올렸다. 나의 마음을 다스려 보았으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생각이 모든 것을 가져가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또 갈 길도 모르면서 부처님께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빌었다. 가야할 길도 없고 갈곳도 없는 우

여 갈곳도 고르고 갈곳도 없으면 때내려 가는 또 하나의 업을 짓는 것인데, 이런 것이 나의 기도로 참회란 말인가? 지금 나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내가 뿌려 놓은 업의 씨앗들이 세속의 길



이지만 제 나름대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하고, 내가 가야할 길을 찾아야 한다. 아직도 나는 내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선조께서 못한 후손들을 위하여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하시고 시주하신 공덕과 나의 기도를 부처님께서 가깝하게 생각하셨는지 지금 나는 전에 비할 바가 되지 않지만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 초부터는 총지사의 참선기도 프로그램에 동참하여 나름대로 내 자신을 반추하고, 다시 재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나가고 있다. 앞으로 나는 열심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 기도하며 나를 도와 주신 여러 불자들에게 위하여 기도 하면서 살아 가야겠다. 너무 관세음보살.

“혼돈떠나 자유찾자” 직지사 연수원에서

속박과 혼돈을 떠난 세상. 묵언속의 좌선, 발우공양 등 스님들과 똑같은 생활을 통해

◆신행단체 직지사연수 일정

Table with 2 columns: 단체 (Group) and 일정 (Schedule). Lists various Buddhist groups and their scheduled activities.

게시관

개강한다. 매주 화요일 주간반(오전 10시30분)과 야간반(오후 7시)으로 나눠 6개월간 불교기초교리, 사찰구조, 부처님의 생애, 불교수행법 등을 강의한다. (051)466-4080

◆모집

△컴퓨터 후원자=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은 소년소녀가장 그룹회에서 사용될 컴퓨터 후원자

들 모집한다. (02)203-0677

△한글·영어 강사=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한글·영어 강사를 모집한다. 월·수·목요일 수업가능한 50세 이상 주부로 관련학과 졸업자면 된다. (02)985-0161

△미발찬 조리·소득 봉사자=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30분~4시 사이에 밑반찬 조리를 맡을 봉사자를 모집한다. (02)203-0677

△한글·영어 강사=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한글·영어 강사를 모집한다. 월·수·목요일 수업가능한 50세 이상 주부로 관련학과 졸업자면 된다. (02)985-0161

△미발찬 조리·소득 봉사자=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30분~4시 사이에 밑반찬 조리를 맡을 봉사자를 모집한다. (02)203-0677

강좌 △간경요법=동화사포교원(관 오사 부설 불교사회교육원(원장 지도)은 12일부터 3개월간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발반사 건강요법·양기요법·베이비마사지요법 강좌를 개설한다. 수강료는 3강과 일괄 1만원. (053)784-3669

△불교교리=부산불교교육원은 제23기 불교입문자교육을 9일

Advertisement for '이것! 이것!' (This! This!) featuring a large vertical character '福' (Blessing) and text about the book's value and availability.

말없는 자의 말 전후 새로운 시기로 인간과 철학과 신을 버려온 인도의 명상가 오스 리즈너의 생애 미지와 열광적인 종교 철학 그리고 존재에 대한 색다른 깨달음의 글과 함께 그의 생애와 임종의 순간을 담고 있다

42장경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질 때 인도의 스승들은 불교의 정수를 모아 42권의 시로 구성하였다 오스 리즈너는 특유의 페이스 넘치는 우회적 길로써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중국의 작은 부처 앙산 위선의 법제자로 미조신사의 많은 신 사색을 무너 뜨린 법을 구하였고 탐원을 만나 해충국사의 원상법당을 전해 받았는데 한 번 보고 단번에 깨쳐 그 지리에 대해 버렸다 스승 위선에게 머물면서 진리를 깨친 그는 중국의 소승(小乘)으로 불림 안을 출중하였으며 후에 스승과 더불어 중국 오가종(五家宗)의 하나인 위암종(唯암宗)의 문을 열었다

오스 리즈너 강의 / 류원정 옮김 / 값 9,000원